

제주도 사신설화의 특성

강 철*

차례

1. 머리말
2. 사신설화의 유형과 의미
 - 1) 富神으로서의 蛇神
 - 2) 大蛇除治
 - 3) 기타
3. 사신설화 전승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도는 뱀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지역으로 예로부터 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런 이유로 가까이 있으나 외경의 대상인 뱀을 신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그럽고 피하고 싶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존재이다. 오늘날에 와서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뱀을 숭배하는 관행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의 蛇神 신앙은 무속과 관련되어 무속 의례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있어서 고유한 생

활 양식의 일부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과 거주 등에 제약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

제주도에 대해 기술한 여러 문헌 기록을 보면, 뱀과 관련된 언급을 볼 수 있다.

“풍속에 몹시 뱀을 꺼려하여 이것을 신이라 해서 받들어서 이것을 보면 곧 술로 주문을 외우며 거룩한 신으로 받들고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²⁾

“지금 사신을 숭봉하는 풍속이 옛날에 비길만큼 심하지는 않다.”³⁾

“이 지방에는 뱀, 독사, 지네가 많은데 만약 회색 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하여 금하여 죽이지 않는다.”⁴⁾

“섬 중에서 두려운 것은 구렁이가 제일 무섭다. …… 섬 사람들은 구렁이와 뱀을 구별함이 없이 보이기만 하면 이를 부령신군이라 하여 쌀과 정수를 빨면서 그에 빌며 이를 살육하는 바가 없다.”⁵⁾

이처럼 제주의 사신 신앙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설화도 많이 전승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제주의 사신신앙과 그와 관련된 蛇神설화에 대한 연구는 간간히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1930년대에 일본인 학자인 秋葉 隆에 의해 이루어졌다.⁶⁾ 토산, 차귀악 등 산기슭이나 구릉 위의 숲이 무성한 곳과 관련되는 蛇神 즉 차귀신앙은 산의 蛇鬼로써 상징되는 山村人 사회의 고문화로, 해촌의 용신과 이와 결합한 영등할망 신앙을 해촌문화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산촌의 고문화는 일찍이 섬의 대부분에 성행하였으나 해촌의 신문화에 의한 압박으로 그 신앙권이 좁혀져서 오늘에 이

1)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p.183
 2)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金淨, <濟州風土錄>)
 3) 今則崇奉蛇神之風 不此昔時尤甚(金尙憲, <南槎錄>)
 4) 地多蛇 蜈蚣 若見炭色蛇 則以爲遮歸之神 禁不殺(李元鎮, <耽羅志>)
 5) 島中 可畏者 無過於蟒蛇 …… 島人則 勿論蟒蛇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而精美淨水酒 而祈之切不殺害(李健, <濟州風土記>)
 6) 秋葉 隆, 심우성 譯,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pp.239~266.

르러 겨우 섬의 동남쪽 구석에 한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뱀신앙이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 일원이 모두 이러한 '사귀신앙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진성기는 蛇神들의 기원을 당신화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재래신과 외래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⁷⁾ 문화전파론의 입장과 비교문학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탁명환은 사신신앙을 토산당 신화 속에서 뱀이란 성의 상징이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성적 욕구가 뱀이라는 신앙 대상을 통해 승화되었다고 한다.⁸⁾ 흔히 뱀은 외적 형태와 집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남성 상징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부분의 해석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현길언은 뱀의 의미를 강렬한 욕망의 좌절을 보상 받으려는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⁹⁾ 蛇神을 철폐한 관리가 복수를 당하는 것은 토속 신앙에 뿌리박은 민중의 저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민중과 관리와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 김녕뱀굴 전설이라고 했다.

鳥越憲三郎은 兎山里 당신신화의 처녀가 왜적에게 겁탈 당하는 화소는 1552년(명종 7년) 여름의 川尾浦 왜침 사건이 설화화된 것으로, 심방들이 미신적, 주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릇된 신탁을 함으로써 과도한 사신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¹⁰⁾ 왜적이 제주를 침범한 기록이 1323년(충숙왕 10년)부터 1556년(명종 11년)까지 30여 차례나 되고, 그에 따라 도민

7) 秦聖麒, 「濟州道の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p.122.

8) 탁명환, 「濟州 蛇神信仰에 對한 小考」,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pp.71~78.

9) 玄吉彦, 「蛇神傳說의 考察 : 金寧蛇窟전설을 중심으로」, 『蘭斯 石宙善博士古稀紀念 民俗學論叢Ⅱ』, 蘭斯 石宙善博士 古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2, pp.309~326.

10) 鳥越憲三郎, 「蛇神と兎山里の事件」, 『耽羅』 第1號, 大阪: 日本耽羅學會, 1988, pp.21~55.

들의 왜적에 대한 적개심도 대단하였다¹¹⁾는 것으로 보아도 타당한 점도 없지 않다.

이기옥은 蛇神설화와 관련된 사신신앙을 생태인류학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¹²⁾ 인접학문의 성과가 설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주었다.

문무병은 蛇神의 선악 양면성을 밝히면서, 蛇神설화를 통해 씨족 중심의 조상수호신에서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¹³⁾

현용준은 제주도의 사신을 일반신인 칠성신, 각 마을의 당에 정착하고 있는 마을의 수호신인 堂神, 일가와 일족에 관련된 조상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신인 칠성신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숭상되는 신으로 보고 있다.¹⁴⁾ 이후에 현용준·현승환은 그간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제주도의 뱀설화를 분석하여 그 신앙의 실태와 대응시켜 그 실상을 밝혔고, 본토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¹⁵⁾

11)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pp.100~104.

12) 李起旭, 앞의 글, pp.199~210.

실제적이고 세속적인 요인들이, 기이하게 보이는 신앙이나 관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신앙이나 특정 관행이 어떤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긴밀히 관련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고 하고 있다. 즉 농작물을 쥐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것에서 사신신앙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쥐의 천적인 뱀에 대한 보호책이 사회적 규율로 채택되었고 끝내는 신화화함으로써 종교적인 해결책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문무병,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 蛇神儀禮를 중심으로」,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pp.407~439.

14)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제주에 전하는 50여개의 당신화를 海神堂系, 本鄉堂系, 七日堂系, 八日堂系로 나누고 본향당신화들은 송당계, 한라산출생신계, 외래계, 기타계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뱀신앙은 八日堂(여드렛당)이다. 여드렛당은 3월, 6월, 11월의 8일에 거행하는데 제물로는 메, 쌀, 해어물, 오물떡, 과일, 채소류 등이 마련되고 단골 무당이 제의를 주관하여 거행한다. 여드렛당신의 유래는 <토산당 본풀이>에 전하고 있다. 이 신은 본래 나주 금성산에서 처녀공회를 받던 영신으로서 이곳에서 퇴치된 이후 죽은 뱀이 바둑돌로 변하여 한양으로 진상갔던 제주도의 진상객에 빙의하여 입도한 토산당에 좌정한 신이다.

15) 玄容駿·玄丞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강철은 제주도의 사신 설화의 양상과 공간구조를 파악한 후, 소설로 변이된 양상을 고찰하였다.¹⁶⁾

이처럼 사신설화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 사신설화의 전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설화끼리 묶어 검토해 보고, 아울러 사신설화 전승의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신설화의 유형과 의미

1) 富神으로서의 蛇神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장편의 <칠성본풀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蛇神의 좌정담이다. 채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칠성본풀리	박봉춘	秋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1937
칠성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칠성본	이무생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칠성본	고창학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칠성본	-	-	風俗巫俗	1994
칠성본풀이	한생소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1998
칠성본풀이	고대중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1962)

제주도의 당본풀이는 같은 내용인 듯하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나는 각편이 많이 존재하는 까닭에 서사구조의 동일함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¹⁷⁾ <칠성본풀이>의 각편도

16) 줄고, 「사신설화와 그 소설적 변이」, 『영주어문』 제5집, 영주어문학회, 2003.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각 편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옛날 장나라 장설용과 송나라 송설룡 부인은 부부가 되어 無子여서 걱정을 한다.
2. 부부는 장님이 된다.
3.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장님이 된 부부는 그 덕분에 살아난다.
4. 치성신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뜬다.
5. 칠성제를 다시 드리고 딸 하나를 얻는다.
6. 부부는 벼슬을 하러 가게 되고, 여종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떠난다.
7. 딸은 부모를 찾으러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는다.
8. 딸은 중을 만나 입신을 한다.
9. 부부는 딸을 찾았으나 임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딸을 무쇠석함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10. 무쇠석함은 함덕리 해안에 표착하여 일곱 잠수와 남자에 의해 발견되어 열어보니, 뱀들이 들어 있었다.
11. 이 뱀들을 동서로 던져버리니 일곱 잠수와 남자는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맸다.
12. 짐을 치니 신을 박대한 죄임을 알고 <칠성새남> 곳을 하니 신병이 낫고, 부자가 되었다.
13. 뱀들이 도성안에 들어오자 성안 송대정 현감의 부인이 모셔다가 큰 부자가 된다.
14. 칠성신이 누워 있는데, 관원이 지나다가 이 뱀들을 보고 더럽다며 침을 뱉자 입병이 났다.
15. 짐을 치고 <칠성새남> 곳을 하였더니 병이 나왔다.
16. 어미 뱀과 딸 뱀 일곱은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고 떠났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밧칠성, 또 한 마리는 안칠성이 된다.

이 본풀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락 1~7은 蛇神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사신은 본래 중국의 장나라 장설용·송설용의 딸이었다.

17) 徐大錫, 「敘事巫歌研究 : 說話·小說과의 관계를 中心으로」, 『國文學研究』 第8輯, 서울대 國文學硏究會, 1968, pp.34~36.

단락 8~10은 중의 자식을 임신하고 무쇠석함에 쫓겨나 표류 끝에 함덕리의 바닷가에 도착하였고, 마침 해녀들이 발견하고 석함을 열어보니 뱀이 여덟 마리가 나왔는데, 장설용의 딸이 일곱 마리의 뱀을 낳고 뱀으로 변신한 것이다. 단락 11~16에서는 석함을 발견한 해녀들이 이 뱀들을 조상신으로 모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이 뱀들은 제주시 송씨 집안의 조상이 되어 집안을 번성시키고 마지막에는 각각 자기가 좌정할 곳을 찾아 갔다. 어미뱀은 관국방을 차지하고, 1녀는 사령방을, 2녀는 마을 본향을, 3녀는 뒷할망을, 4녀는 신목을, 5녀는 창고를, 6녀는 집의 처마를, 7녀는 돌담울타리를 차지하였다. 일곱딸과 어머니 蛇神 가운데 막내딸이 밧칠성이 되고 어머니가 안칠성이 되며, 밧칠성은 집 뒤안 공지에 모셔져 곡식의 풍요를 맡고 안칠성은 고폡(곳간)을 차지하여 부의 수호신으로 집집마다 모셔진다.¹⁸⁾ 잘 위하면 부귀를 주고, 금기시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사신이 수호신으로서 부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천리 안씨 집 수호신과 선흘리 안씨집의 수호신을 찾을 수 있다. 蛇神이 일가 및 일족의 수호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랑을 맞았으나 뱀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고, 그 뱀을 모심으로서 부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귀들은 배염>에서는 수산리 여인이 시흥리에서 조 서말을 빌려오면서 함께 따라온 뱀을 치마폭에 싸서 고폡에 모셨더니 집안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면에 시흥리 부자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뱀을 모셔야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는 <양돈어네 조상>¹⁹⁾에서도 사신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뱀이야기>²⁰⁾에는 육지에서 곡식을 싣고 제주로 오던 배가 관탈

18) 玄容駿, 앞의 책에서 사신을 부의 축적과 생업의 수호신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19)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61, p240. 이하 『大系』로 줄임.

섬 근처에서 풍랑으로 침몰 위기에 놓였으나 그 위기를 넘기고 제주에 도착해 보니 뱀이 떼지어 물이 배에 스며드는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구정승과 뱀아들>²¹⁾, <구렁이가 된 막내>²²⁾, <뱀으로 환생한 박씨>²³⁾ 등에서도 인간의 운명과 재화의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신설화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운명과 재화의 수호신으로서의 蛇神의 모습은 현대 소설 <장마>에도 계승되고 있다. 외할머니가 뱀과 대화하는 데서 뱀은 기피와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뱀은 한 집안의 재산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다음의 설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어떤 집에서 곡식을 마당에 널어 말리고 있었다. 그대 갑자기 마당 한 귀퉁이에서 뱀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대역섯 마리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한동안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부엌으로 들어가서 살을 가지고 나와 마당에 훌부리면서 “조상님, 조상님,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갑서, 가서 편안히 사십서.”라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뱀들은 한 두 마리씩 물러가기 시작했다.²⁴⁾

여기에서도 재화의 수호신으로서의 사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주인의 말을 통해 보면, 뱀은 한 집안의 재산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뱀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가 낫는 이야기는 <토산뱀>²⁵⁾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산리의 신랑이 토산리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함께 따라 온 뱀을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묻어 버리자 토산리에서는 앓는 사람들이 생긴다. 굿을 하고 토산리에서 그 뱀을 찾아 가자 모두 병이 낫게 되었다는 내용

20) 金榮教·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p.423.

21) 金榮教·玄容駿·玄吉彦, 위의 책, p.287.

22) 金榮教·玄容駿·玄吉彦, 위의 책, p.154.

23) 金榮教·玄容駿·玄吉彦, 위의 책, p.824.

24) 李瑄淑, 『濟州島 民間信仰 調査(2) : 濟州島の 蛇信仰에 대한 民譚事例』, 『濟大社會科教育』 第4輯, 濟州대학교 사회교육과, 1987, p.108

25) 金榮教·玄容駿·玄吉彦, 위의 책, p.479.

이다. 합덕리 해안에 표착한 사신을 일곱 잠수와 남자가 던져버리고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다가 <칠성새남> 굿을 하니 신병이 낫고,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다음은 <광정당>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설화들이다.

1. 본풀이의 내용과 유사(<김녕 궤내깃당>, 『大系』 9-1, p.146.)
2.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 당신을 위하여 안덕면 창천리 강씨택에서 굿을 했다.<사신(蛇神) (1)>, 『大系』 9-3, p.1115.)
3. 사신을 위해 표선면 가시리 강씨택에서 굿을 했다.<사신(蛇神) (2)>, 『大系』 9-3, p.1118.)
4. 안할망은 동헌 안에 모시는 당신이고 광주 할망은 영험이 있는 당신이다.<안할망과 광주할망>, 『大系』 9-3, p.487.)

2) 大蛇除治

蛇神은 위와 같이 인간과 화합하는 富神으로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인간과 대립·갈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지방의 당신을 무시하는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와 관련되어 있는 <광정당>형 설화와 지하국대적제치형의 대표적인 설화로 蛇神과 인간 사이의 대립·갈등을 보여 주고 있는 <김녕뱀굴>형 설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광정당형

<광정당>형 설화로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禮村本郷堂 본풀이

1. 허좌수는 벼슬살이 할 때, 이 당 길 치는²⁶⁾ 데 말을 탄 채 당 앞을 그냥

26) 신을 하강시킬 때 또는 死靈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긴 무명을 깔고 길을 치우는 모습을 하는 祭次.

지나가다가 말발이 절어서 말이 죽습니다.

2. 그러니 심방을 불러놓고, “이게 어떤 일이나?” “이 당 靈氣로 그렇습니다.” “말고기 못 먹은 귀신이로구나. 말고기 잡아 먹게 굿을 하여라.” 하여 말을 잡아놓고 굿을 해가니, 大鱗이가 움직움직 나와가니, 허좌수 달려들어 죽이려 하니 청비들기로 환생하여 칠로름으로 가 떨어집니다. 그 후로 당을 지금 조상 모신 데로 옮겼습니다.
3. 허좌수는 호근리 집에 걸어 가 살다가 정의골에 좌수를 하러 갔는데, 하루는 하인이 밤중에 일어나 말을 하되, “목사가 서쪽으로 巡歷 오고 있습니다. 支待하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니 급하게 말을 타서 支待하러 가는데 점점 목사 행차 소리는 멀어지고 문드쟁이때에 와서 들으니 하논곶 쪽에서 소리가 나, 하논곶에 가 보니 군막이 쳐 있어 옆드러니, “너가 허좌수냐? 우리를 모르겠느냐? 나는 김녕 본향이노라.” “나는 대정 광정당 본향이노라.” “나는 예촌 본향이노라. 너는 우리에게 어떤 욕을 하였느냐?” “하옥하여 처벌하라.” 한집에서 영이 내려 처벌을 받는데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뒷날 호근리 사람이 다니다 보니 허좌수가 유혈이 낭자하여 누웠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여 일으켜 놓으니, 깨어나 보니 군막도 없고 목사도 없더라.
4. 허좌수는 그 후 자손이 씨가 없어지고 재산이 망하여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하루는 밭에 김매러 가서 아기를 밭고랑에 눕혀두고 일하는데, 낮이 지나도록 눕혀둔 아기가 울지를 알아 이상하다 하여 가 보니, 뱀이 아기 목으로 들어가 죽어있었습니다.²⁷⁾

(4)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1. 이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에 이르러 下馬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2. 굿을 하는데서 뱀이 나오자 죽여 태우자 장평이 되었다.
3. 어느날 이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답이나 쌓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골충귀신의 하라는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다.
4. 집에 돌아가 보니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다.²⁸⁾

27) 玄容駉,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pp.731~733.

28)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大系』 9-3, p.703.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은 재치자인 허좌수와 당신의 대립과 갈등이다. (가)와 (나)의 각 단락의 내용은 유사한데, (가)-1에서 허좌수는 곳을 하는 당 앞을 말을 탄 채로 지나가는데, 이에 대한 징벌로 말이 발을 절다가 죽는다. (가)-2에서 허좌수는 심방을 불러놓고 말이 죽은 이유를 묻는다. 허좌수는 당의 靈氣로 인해 말이 죽은 것을 알고도 오히려 大蟒이(당신)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瀆神이 일어난다는 점이 무엇보다 특징적이다. 이런 사실에서 (가)-1에서의 허좌수의 瀆神 행위 역시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력을 무시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영험하고 신성한 존재이며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가)-1에서처럼 말을 탄 채 당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가)-2에서처럼 뱀으로 顯現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²⁹⁾

(가)-1에서는 당신과 허좌수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서 당신이 말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두지만, (가)-2 단락에서는 허좌수가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청비둘기로 변신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이런 허좌수의 행위에 대한 당신의 징벌은 (가)-3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허좌수가 죽이려 한 예촌본향당신이 대정 광정당신과 김녕 본향당신과 함께 나타나 징벌하고 있다. 단락 4에서는 허좌수의 자손이 끊기고 집안을 망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미신 파타와 풍속을 개량하려는 허좌수의 행위는 손자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마는 철저한 패배로 막이 내린다.

대정 광정당신의 본체를 보고도 직접 죽이려고 한 허좌수와 당신 사이의 갈등은 당신앙을 부정하는 관리 집단과 당신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해석된다.³⁰⁾ 허좌수와 당신 간에 여러 번에 걸친 대립이 결국 허좌수와 그 자손에 대한 당신의 철저한 승리로 끝나는 것은, 당신앙을 부정

29)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p.50.

30) 정진희, 위의 글, p.50.

하는 지배 관리 집단에 대한 당신의 우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李衡詳 목사의 신당 철폐와 관련된 설화이다. 이런 모습은 <광정당말무덤>³¹⁾에도 나타나는데 제주목사 李衡詳이 蛇神을 모시는 광정당을 철폐하려다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다리를 절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여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더니 이무기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공안적 성격을 띤 설화이다. 혹 세무민하는 당신을 철폐한 일이라든지, 골충 귀신의 요구를 받아주어 묘를 치산한 것은 한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결과 악신의 흥함을 피할 수 있었다는 구조는 당대 지배 집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단순히 폐충이 된 묘를 치산해줬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일이 바로 절과 신당을 철폐하는 일과 상대되도록 설정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유다르다. 그런데, 이목사가 화를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당신의 복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결구가 특이하다. 그것이 제주설화다운 점이다.³²⁾

이것으로 제주의 무속신앙은 단순한 풍습으로서의 무속의 차원을 넘어 신앙으로서의 종교적 성격이 강하였기에 그만큼 그것은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는 데 탄탄한 기초로서 자리잡혀 있음을 의미한다.³³⁾ 이에 따라 무속에 행해지는 제의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의에서 구연되는 본풀이가 의례적인 모습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형태의 설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화는 조선조 때의 중앙의 지방에 대한 완전한 지배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는 다음과 같다. 자료와 이야기의 줄거리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玄容駿 『제주도 傳說』, 서문당, 1976.

32) 玄吉彦,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pp.234~235.

33) 玄吉彦, 위의 글, p.234.

1. 서판관이 뱀을 죽이나 하인이 말을 걸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죽게 되었다.(<김녕사굴>, 『大系』 9-1, p.39.)
2. 김녕뱀굴의 뱀을 죽인 영천 목사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자 대풍이 불어 못가는데,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다.(<김녕 뱀굴>, 『大系』 9-1, p.191.)
3. 서련판관이 뱀을 죽이고 그 보복으로 죽었다.(<김녕뱀굴>, 『大系』 9-2, p.719.)
4. 이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에 이르러 下馬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곳을 하는데서 뱀이 나오자 죽여 태우자 장평이 되었다. 어느날 이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담이나 쌓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골충귀신의 하라는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는데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당오백 절오백을 없애 버렸다. 자식 생각을 하다가 닭깃으로 목을 찢어 “늑들이 암만 물어봐도 나만큼 속이 아프진 않다”고 하였다.(<광정당과 이목사>, 『大系』 9-3, p.734.)
5. 광정당에서 곳을 하는데 이형상 목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아 그 말이 죽었고 곳을 하는데 뱀이 나오면 태워버리려는데 그 영혼이 평이 되어 날아든다고 해서 ‘새당’이라고 하였다.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大系』 9-3, p.703.)
6. 영찰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의 근처에 이르러 부하들이 하마하라는 말을 했는데 어기고 가다 말이 발이 저려 걸지를 못하였다. 영찰목사는 뱀을 죽였고, 골충들을 잘 수리해 주고 그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갔다.(<영찰목사(榮察牧使)>, 『大系』 9-3, p.100.)
7. 본향당의 당신(大蛇)이 허좌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하였다.(<당신(堂神)과 허좌수(許座首)>, 『大系』 9-3, p.1120.)

(2) 김녕뱀굴형

<김녕뱀굴>형 설화는 <지하국대적제치>형의 대표적인 설화로 蛇神과 인간 사이의 대립·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가) 괴노깃당 본풀이

1. 영천 이목사 시절에 사람을 뱀에 바쳐가니 그 원통하고 칭원한 생각은

- 말할 수가 없고, 堂굿날에 제상 앞에 사람을 뱀에게 턱하게 내밀어, “무엇이 먹느냐?”고 하면 “뱀이 먹었다.”
2. 영청 이목사가 생각을 하니 “그러니 이제 무녀를 불러다가 굿을 해라. 이런 인재숙 받는 귀신의 얼굴을 보겠다.”하니, 무녀가 와서 두 이레 열나흘을 굿을 하니 뱀이 나왔다.
 3. 한 아가리는 하늘에 붙이고 한 아가리는 땅에 붙여 아가리를 딱 벌리고 나왔다. 그러니 “몸뚱이를 보여라.”하니 이제는 몸뚱이가 나오게 되어 “불 잘 놓는 사람들, 활 잘 쏘는 사람들, 모두 모여들라.”하여 그 뱀을 죽였다.
 4. 이제는 그 조화로 당귀신 절귀신으로 있는 등불화초가 번성하여 영청 이목사를 죽이자고 하니 고총귀신으로 있던 피총귀신이 나타나 영천 이목사에게 “오십시오, 곧 오십시오, 당귀신 절귀신으로 있는 등불화초가 당신을 곧 죽이려고 하니, 이제 곧 별도 수진개로 떠나십시오.”하여 영천 이목사가 배를 타고 수평선을 넘어서니, 등불화초가 그까지 날아가서 끝내 이목사를 죽였다.³⁴⁾

(4) 김녕뱀굴

1. 옛날 구좌면 김녕리 동굴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고, 뱀이 주민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므로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쳐 굿을 했다.
2. 종종 때 서련이 판관으로 부임하여 뱀이 나타나도록 굿판을 벌인다.
3. 이에 나타난 뱀을 살해한다.
4. 무당이 서련 판관에게 화를 피하여 달아나게 하고 무슨일이 있어도 뒤 돌아 보지 말라고 당부한다.
5. 피비가 쏟아진다는 군사의 의침에 본능적으로 뒤돌아 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³⁵⁾

김녕의 괴뇌깃당에서 불리는 본풀이인 <괴뇌깃당 본풀이>는 <김녕뱀굴>형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 실린 것이 유일하다. 괴뇌깃당은 김녕사굴이라고 알려진 괴뇌기동굴 속에 좌정한 蛇神을 모시는 당인데, 지방관이 괴뇌깃당의 당신인 김녕뱀굴의

34)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380~381.

35) <김녕뱀굴>, 『大系』 9-2, p.719.

뱀을 죽인 까닭에 사신의 복수를 받았다는 유사한 내용의 설화는 여러 설화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설화가 본풀이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가-1)에는 人身供繼와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뱀은 인간을 희생시키며 신격을 과시하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가 설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박종성³⁷⁾이 시도하였다. 박종성은 전국적인 蛇神설화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蛇神설화를 하나의 전체로서 불가분의 전체로서 파악하고, 이들을 의미적, 형식적 동질성을 추출하여 蛇神설화 내의 개별 설화들의 형성의 문제를 설화유형 상호간의 계기적 측면에서 고찰했다.³⁸⁾ 이러한 점은 제주의 蛇神설화를 본토의 것과 비교 연구하고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점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가-1)에 처럼 주민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는 요사한 존재이다. 人身供繼는 주민들에게는 당신에 대한 외경의 표현이지만, 요괴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의 희생이다. 그 결과 (가-2, 3)에서 목사는 뱀이 나타나도록 굿을 하여, 蛇神을 죽이고야 만다. 목사가 당신을 죽인 행위는 유교를 숭상하는 지배 집단으로서 애초부터 당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뢰당신에 대한 목사의 승리이다. 그러나 (가-4)에서 보면, 당귀신 절귀신으로 있는 피층귀신이 죽은 蛇神을 대신하여 목사에 대해 징벌한다. <禮村本郷堂 본풀이>에서는 예촌본향당신이 대정 광정당신과 김녕 본향당신과 함께 나타나 허좌수를

36) 정진희, 앞의 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p.52

37)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38) 박종성, 앞의 글.

무조신의 좌정담인 <사신칠성 본풀이>와 건국시조나 성씨시조의 탄생담인 <야래자> 설화에, 한 개인의 행·불행담으로 존재하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각 유형들이 근본적으로 신혼제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층위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제의에 대한 인간의 인식적 변모 과정에 따라 사신설화 사이의 선후 관계를 밝혔다.

그리고 사신과 타 신격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신격의 대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문화발전 단계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뱀, 지내, 두꺼비, 용으로 대표되는 사신격의 날 것, 썩은 것, 구운 것, 끓인 것, 훈증한 것과 같은 요리법에 있어서의 문화적 발전단계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징벌하는데, <괴너깃당 본풀이>에서는 죽은 당신을 대신하여 다른 당신들이 목사에게 징벌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목사는 고총귀신으로 있던 피총귀신의 도움으로 제주를 떠나고도 결국 당신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다. 여기에서도 당신과 지배 집단의 대립과 갈등은 지배 집단의 철저한 패배로 끝을 맺는다. 마을 사람들이 행하던 祭儀를 무시해버리고 지배 집단의 논리를 내세운 것에 대한 철저한 징벌이라 할 수 있다.

(ㄴ-1, 2를 보면 (가)-1, 2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蛇神과 인간의 화합의 상황으로 蛇神에게 인간을 바치되, 인간의 죽음을 통해 집단적 풍요와 번영을 도모하는 제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ㄴ-3에서는 서런 판판이라는 새로운 관리의 등장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蛇神과의 대결이 나타난다. 蛇神과 인간의 화합을 통해서 마을의 안녕이 보장되었던 蛇神 제의(굿)가, 인간의 죽음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삶의 중심에 인간이 자리 잡음으로 해서, 먹는 자로서의 蛇神은 부정적 가치를 지니면서 인간에 의해 제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사신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흉년이 들게 하므로 해마다 처녀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성은 제의적인 관점에서 蛇神을 위한 인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제의에서 생겨난 蛇神說話의 개별 자료들을 蛇神과 인간의 성적 결합의 측면과 蛇神과 인간의 대결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³⁹⁾ 전자의 경우는 神婚祭儀에서 기원하며, 후자는 인간의 죽음을 통한 집단의 풍요와 번영이라는 희생제의에서 바탕을 둔다고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설화들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신은 관리들에 의해 제치되자 제치자를 철저히 복수하고 있다.

박종성은 사신설화를 人身供儀를 매개로 하는 인간과 사신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어, 사신이 인간에 의하여 제치되는 과정에 따라 각 설화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⁴⁰⁾ 蛇神에게 처녀를 바쳐 마을의 안녕을 비는 풍습이 있자 목사가 뱀을 죽인다는 것인데, 마을 사람들이 뱀에게 처녀를 바쳐

39) 박종성, 앞의 글, pp.13~53.

40) 박종성, 위의 글, pp.37~69.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공통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신은 제치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희생자를 잡아 먹다가 영웅에게 제치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⁴¹⁾ 사신이 마을의 재앙을 가져오는 신격이지만 더 이상 승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간에 의하여 제치되고 있다. 마을 처녀의 희생에서 제치자의 등장으로 인해 사신이 제치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년 정해진 때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성드려 마련한 제사를 받는 것으로 봐서, 마을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는 당신임에 틀림없다. 관원의 입장에서는 이 신에 대한 제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민폐로 생각되어 그를 퇴치한다. 이 설화에서도 본토에서 흔한 용기있는 관원이나 지방 수령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귀를 퇴치해서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했다는 식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광정당 설화처럼 이 설화에서도 끝에서 사태는 역전된다. 즉 요구의 퇴치자인 관원이 蛇神에게 복수를 당하고 패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堂神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상 필자는 <김녕뱀굴>형 설화를 살펴보았다. 애초에는 사신에게 처녀가 희생되었다가 결국 판관까지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희생물의 다양한 변모는 이 蛇神說話가 가지고 있는 전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끝으로 <김녕뱀굴>형과 유사한 내용을 지닌 설화는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죽으면 뱀굴에 갖다 놓으면 뱀이 먹었는데 목사가 뱀을 폭파시켜 죽였다.(<김녕 뱀굴>, 『大系』 9-2 p637.)
2. 임경업 장군이 유람하다가 한해에 처녀 하나를 잡아먹는 뱀을 처녀 대신 가서 죽였다.(<임경업 장군>, 『大系』 9-2 p225.)
3. 경북 영천에서 온 李衡祥목사가 구좌면 김녕 사굴을 죽인 후 돌아와 잠

41) 박종성, 위의 글, p3.

을 자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일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이튿날 이형상 목사는 배를 잘 탄다는 김동지와 박동지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배가 돌아오는 도중 배의 밑바닥이 터져서 물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배의 깃봉으로 큰 구멍이 내려와서 그 구멍 터진 배 밑바닥을 막았다.

3) 기타

이외에 뱀과 관련된 설화는 다음과 같다.

1. 제사 때 메밥사에 머리털은 영혼에게 뱀으로 보이므로, 전라도 부근에 서는 제사 3일전부터 입막고 머리 빗어 싸멘다고 한다.(〈메밥의 머리털은 뱀〉, 『大系』 9-2 p.260.)
2.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양돈어네 조상〉, 『大系』 9-2 p.240.)

이상의 설화들은 위에서 제시한 유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제사 관습 등에 대한 이야기에 뱀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이다.

3. 사신설화 전승의 의미

위에서 살펴보았던 설화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신을 부정하는 허좌수와 영천 이목사로 대표되는 지배 집단의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설화에 허좌수와 영천 이목사로 나타난 인물은 1703년(숙종 29년)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瓶窩 李衡祥(1653~1733)⁴²⁾을 말한다. 설화에서 '영천 이목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외지

42) 元裕漢, '이형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355~356 참고.

인을 지칭할 때 고향을 이름 앞에 붙이는 습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李衡祥의 고향이 경상북도 永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李衡祥은 제주 목사로 재직할 때에 여러 곳의 신당과 절을 철폐했다. 金錫翼의 <耽羅紀年>에 나타난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대정 산방산 길가에 광정당이라는 음사가 있어 여기를 지날 때 하마하지 않으면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형상 목사가 순행하여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 속이 하마하도록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는데 과연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형상이 손수 그 땅에 이르러 무당으로 하여금 말을 죽여 제사를 지내며 뱀이 나타나기를 빌었는데 요사스런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명기간을 물어뜯었다. 이 구렁이를 죽이고 그 당을 불살라버리니 이때부터 음사가 없어졌다.”⁴³⁾

李衡祥 목사가 신당을 철폐한 까닭은 당시 제주의 巫覡들을 惑世誣民 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집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李衡祥이 편찬한 <南宮博物>의 기록을 보면 당시 무격들에 대한 이형상 자신의 생

李衡祥은 孝寧大君 10대손으로, 1677년(숙종 3년) 司馬試에 합격한 후 1680년 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호조좌랑을 지내고, 금산군수가 되어 도적을 평정하였다. 1703년 제주목사, 1727년(영조 3년) 호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경북 永川에 내려가 洪然亭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遜筮錄>이라는 八畏十惡의 萬言疏를 초안하였다. 1728년 嘉善大夫로서, 李麟佐의 난 때 경상도 召募使가 되었으나 같은 소론으로서 당론을 발설했다는 무고를 받고 한때 투옥되었다. 후에 한성부윤이 되었는데, 1796년(정조 20년)에는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영천 城南書院과 제주도 사당에 배향되었다.

그의 집안은 서인계열이었으나, 老少로 분리되면서 소론에 속하였는데, 실제로 南人 측과 가깝게 지냈다. 이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가 되는 등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부윤, 목사 등 지방관을 전전하였다.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瓶窩全書>를 보면, 그는 정통 주자학에 바탕을 두면서도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과 나라의 문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의 문물을 담은 <耽羅巡歷圖>와 <南宮博物>을 남겼으며, 강화의 역사와 문물 그리고 군사적 대비를 기술한 <江都誌>, 그리고 일본, 몽고 등 각 나라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43) 大靜 山房山路邊 有淫祠曰廣靜堂 過者不下馬則馬蹇 李衡祥 巡行至此 吏白下馬不聽馬果蹇踟 衡祥親到其堂 使巫刑馬以祭求見其神 妖蟒出現 毒蠱司命旗竿 遂軒之燒其堂 自此淫祠遂絕(金錫翼, <耽羅紀年>)

각이 잘 드러난다.

〈풍토록〉에 말하기를 귀신을 지독히 제사 지내는 것을 숭상하고, 남자 무당이 심히 많아서 사람들을 災禍로 공갈하여 쉽게 재물을 취하는데 朔望과 七七日에는 짐승을 희생하여 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 나는 도 狀啓하여 대략 말하기를 巫覡輩가 惑世誣民하는 버릇은 스스로 이는 天下萬古에 共有하는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이라, 또한 無益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저들은 이른바 男覡女巫로 양양한 기세로 무뢰배로 하여금 堂漢이라 칭하여 상호 結契하였으니 그 수가 천명이 넘습니다. 혹은 마을에서 討食하고 혹은 신당에서 소를 잡아서 村民들이 유치한 綿布와 비단을 처음에는 귀신에게 빌미를 내놓도록 하고, 만약 내놓지 않으면 귀신이 差使를 보내왔다 하여 堂漢들이 결박하여 약탈합니다. 심지어 그 牛馬를 약탈한 것이 그 수가 백필에 가깝고, 또 그 전답을 약탈하여 각자 나누어 먹으면서 位田이라 칭하고, 혹은 捨施라 칭하여 田을 끌어놓는 것이 천백이 됩니다. 堂에 쌓인 珠貝는 무릇 行船할 때 그저 神崇가 있음은 알지만 官稅가 있음은 알지 못합니다. 進上船이 바람을 기다릴 때는 역시 반드시 신당에 하직을 하는데 이같은 풍습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인심의 順逆은 예로부터 정한 것은 아니나 잡부류가 무리를 지어 또한 건너가는 것을 보면 그 형세가 惑世誣民에 그치지 아니합니다.“⁴⁴⁾

이러한 이유로 李衡上 목사는 신당을 철폐하게 하게 되는데, 역시 『南宮博物』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달 20일에 鄉所의 유생·무사·서리 및 가면의 面任 각리의 里任들이 정결한 곳에 서로 모이며 北向四拜한 후에 8백여명이 와서 신에게 아뢰기를 “지금 이와 같은 나라의 은혜는 예전에는 있지 못하였던바, …… 혜택은 지극하여 뼈에 새길 것입니다.” …… 다음 날에는 각자가 三畝⁴⁵⁾에 있는 신당

44) 李衡祥, 金奉玉 역, 『南宮博物(Ⅱ)』, 『제주도』 통권 제93호, 濟州道, 1993. 1, pp.315~316.

45)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國家祭祀」,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p.180.

당시 제주에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3개 행정단위로 편성되어 있었다. 행정 중심지로 목사가 책임자로 있던 제주목은 제주읍에 자리잡고 있었고, 그 밑에 하부 단위로 현감이 행정을 담당하던 2개 현이 소속되어 있어 흔히 ‘濟州三畝’

129개소를 소각하고, 또 私家에서 신에 기도하는 물건이나 길가 叢林에 있는 것과 巫覡輩의 神衣와 神絛 일체를 다 불태우고, 심지어 나무 뿌리를 파서 佛像을 훼손하니 지금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삼촌 수령들이 연이어 첩 보하였습니다. …… 남녀노소가 빈번히 보며 서로 축하하고 巫覡을 보면 원수 보듯하니 巫覡들은 부끄러워하여 더불어 伍인이 됩니다.⁴⁶⁾

이러한 신당 철폐의 목적 단순히 感世誨民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무력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李衡祥은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의 국가 祭祀를 정비하려는 건의를 올린다.

악(嶽)·해(海)·독(瀆)이 기고제전(祈告祭展)에 산림과 명산(名山) 대천(大川)이 소사(小祀)에 실려 있는 것 또한 예의(禮意)가 있습니다. 한라산 및 대해(大海)는 나름대로 중토(中土)에서 유명하게 일컬어지는 것인데 사전(祀典)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하나 같이 주현(州縣)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예에 따라 향축(香祝)을 내리시어 제사를 행함이 합당한 듯하오니 예(禮) 고찰하여 처리토록 하심이 어떠합니까.⁴⁷⁾

위의 것은 유교식 한라신제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李衡祥은 風雲雷雨祭, 老人星 및 馬祖에 대한 제사, 희생 제물에 관한 것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여 다시 제사가 행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제주에 본래부터 있던 漢拏山祭를 유교식으로 전환하고 風雲雷雨祭를 혁파하며, 삼성사에 대한 제의를 정비한 것은 祀典 정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전 정비의 방향은 제주에서 독특하게 행해

이라고 불렀다. 제주도는 형식적으로는 전라도에 속한 3개 행정 단위였지만, 사실상으로는 독립적인 행정 단위였고 전권을 행사하였다.

46) 李衡祥, 金奉玉 역, 위의 글, pp.316~317.

47) 李衡祥, 『國譯 瓶窩集(Ⅲ)』,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p.192.

원문은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瓶窩先生文集』 卷十七, 『瓶窩全書』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312~313. (嶽海瀆之載於祈告祭展名山大川之載於小祀者亦有禮意漢拏山及大海自是著稱於中土者而不載於祀典一依州縣名山大川之例降香祝行祀以合事宜考禮 稟處何如)

지는 제의는 혁파하고 국가주도의 유교적 제의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제주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인 각종 신에 대한 제사를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주민들을 유교적인 질서 속에 하나로 묶어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⁴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제주의 전통 사회가 중앙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유교적 질서로 편입할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당 철폐는 제주의 전통적인 祭祀인 한라산제의 유교식으로의 변질과 風雲雷雨祭의 혁파라고 할 수 있다. 신당을 비롯한 제주 전통 제의의 혁파는 중앙 지배 질서의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설화에 등장하는 허좌수와 영천 이목사로 대표되는 지배 집단은 당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의 질서 체계를 중앙 집권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이를 파괴하려는 중앙 지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耽羅巡歷圖>⁴⁹⁾에 나와 있는 '巾浦拜恩'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⁵⁰⁾ '巾浦拜恩'은 1702년(숙종 28년) 12월 20일 실시되었다. 鄕品文武 300여명이 일부는 觀德亭 앞에서, 또 다른 일부는 健入浦에서 북쪽을 향해 조정에 배례하는 모습과 제주의 각 마을에 있었던 신당의 일부가 불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그림은 아마 李衡祥이 제주목사에

48) 조성윤, 위의 글, pp.178~201.

49) <耽羅巡歷圖>는 1702년에 李衡祥이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에 부임하여 도내 각 고을을 순시하고 또 당시에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제주목 소속의 畫工 金南吉에게 그리게 하였다.

<耽羅巡歷圖>는 그 크기가 세로 55cm, 가로 35cm의 壯紙 위에 그린 그림이다. 모두 43면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 지도인 '漢學壯圖' 1면과 1702년의 행사기록도 39면, 그리고 '浩然琴書' 1면과 李衡祥이 적은 書記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형식은 제일 마지막인 '浩然琴書'를 제외하고는 화면을 붉은 선으로 3등분하였다. 제일 윗부분에는 해서체로 4자씩으로 된 제목을 써넣었고, 중단에는 金南吉의 그림이 있으며, 밑부분에는 행사 참가인원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50) 壬午十二月二十日 鄕品文武上下并三百餘人 燒火神堂處 破毀寺刹五處 巫覡醜農二百八十五名('巾浦拜恩', <耽羅巡歷圖>)

<耽羅巡歷圖>, 제주시, 2002(제4판), pp.96~97.

부임하여 제주의 신당을 불태우고 사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당시 도민들의 정서는 그와 반대의 상황이었겠지만, 李衡祥 목사는 신당 철폐 자체를 커다란 업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불타 없어진 신당은 129곳에 이르며, 훼손된 사찰은 5곳이다. 그리고 巫覡 285명으로 하여금 농업을 본업으로 삼도록 조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다면 토착적인 사신을 부정하는 지배 집단 당신 사이에서 벌어진 대립과 갈등은 당신의 철저한 승리로 끝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앙을 파괴하는 중앙 권력 집단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당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의 특유의 질서와 유교적 질서 체계를 지니고 있는 중앙 지배 권력 집단 사이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허좌수, 이목사라는 개인과 당신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광정당>형과 <김녕뱀굴>형 설화의 두 가지 유형의 설화는 제주인들의 중앙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는 반관적 의식이 표출된 것이며, 또한 변방에 거주하여 주변인적인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화는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본토의 설화와 그 내용과 구조가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설화는 주변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서의 중앙에 대한 반지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사신설화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칠성본풀이>형의 설화에서는 뱀이 재화 부귀와 직접 관련된 신

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뱀은 조상신이고, 풍요의 신앙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광정당>형과 <김녕뱀굴>형의 설화에서 뱀에의 기피와 숭배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표면상으로는 중앙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런 설화들이 중앙의 지방에 대한 완전한 지배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제주의 전통 사회가 중앙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유교적 질서로 편입할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당 철폐는 제주의 전통적인 祭祀인 한라산제의 유교식으로서의 변질과 風雲雷雨祭의 혁파라고 할 수 있다. 신당을 비롯한 제주 전통 제의의 혁파는 중앙 지배 질서의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설화에 등장하는 허좌수와 영천 이목사로 대표되는 지배 집단은 당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의 질서 체계를 중앙 집권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이를 파괴하려는 중앙 지배 권력으로 파악된다.

제주도 사신 설화의 유형과 의미를 검토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료를 두루 섭렵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추후의 논의를 통하여 여기서 다루지 못한 자료까지 검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신 설화의 연구는 지령이, 지네, 거북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사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가 견고해질 것이며, 인류학·비교문학 등 다양한 인접학문의 도움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해남도(중국),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등과의 비교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료 수집 및 보완이 계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高瓊華, 『濟州의 神歌 : 濟州敍事巫歌全集』, 성민출판사, 2003.
- 金榮敦 · 玄容駿 · 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 李衡祥, 『耽羅巡歷圖』
- _____, 金奉玉 역, 『南宦博物(Ⅱ)』, 『제주도』 통권 제93호, 濟州道, 1993. 1.
- 제주도 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玄容駿 · 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1, 1983.
- _____,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_____, 『제주도 傳說』, 서문당, 1976.
- 赤松智城 · 秋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1937.
- 高昌錫 의,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 문무병,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 蛇神儀禮를 중심으로』,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도서출판 월인, 2002.
- 백남극 · 심재한, 『뱀』, 지성사, 1999.
- 서대석, 『동북아시아 무가의 비교 연구』, 『제3회 동아시아 국제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 한국학과 생활문화』, 1996. 9. 17.
- 李瑄淑, 『濟州島 民間信仰 調査(2) : 濟州島의 蛇信仰에 대한 民譚事例』, 『濟大社會科教育』 第4輯,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1987.
-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 李志映, 『韓國 敍事文學의 研究』, 국학자료원, 1997.
- 임강락, 『뱀설화 연구』, 『啓明語文學』 제1집, 계명어문학회, 1984.
-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曹喜雄, 『說話學綱要』, 새문사, 1989.
- 秦聖麒, 『濟州道の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_____, 「南國의 巫俗」, 螢雪出版社, 1987.
- 탁명환, 「濟州 蛇神信仰에 對한 小考」,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許 楮, 「濟州 說話 研究의 몇 問題」, 『洙上古典研究』 제11집, 열상고전연구회, 1998.
- _____, 「濟州 說話의 特性 研究」, 『濟州島 研究』 제16집, 濟州學會, 1999.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_____, 「蛇神傳說의 考察 : 金寧蛇窟전설을 중심으로」, 『蘭斯 石宙善博士古稀紀念 民俗學論叢Ⅱ』, 蘭斯 石宙善博士 古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2.
- _____,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 _____, 「제주설화와 그 주변성」,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玄丞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 秋葉 隆, 심우성 譯,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 鳥越憲三郎, 「蛇神と兎山里の事件」, 『耽羅』 第1號, 大阪: 日本耽羅學會, 1988.